

충격! 이경훈 집행부, 총파업 승리 지역실천단장 집단 폭행! 이경훈 지부장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 글은 금속노조 조합원 연서명 성명으로, 27~28일 단 이틀 동안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쌍용차·한국지엠·현대중공업사내하청 등에서 1천여 명 넘게 동참했다. 연서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가 4월 24일 7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참여해 진행한 울산 총파업 집회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했다. 민주노조 운동 역사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허수영 지역실천단장은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파업 철회를 비판하며, '이경훈 지부장은 지부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이경훈 집행부의 상집 간부들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마이크를 뺏고 집단 폭행을 가해 허 단장이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올바른 비판을 폭력으로 가로막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민주노

총·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어기고 '확대간부' 수준으로 축소된 것은 총파업 전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특히 이경훈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들의 파업 동참 촉구를 개무시하고, 오히려 보수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했다.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사는 민주노조 운동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강패 짓거리다. 이경훈 지부장은 2010년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점거파업에 연대한 단체 회원의 목을 조르며 따귀를 때려 농성장에서 내쫓은 적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는 활동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자행한 이경훈 집행부의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도 이경훈 집행부를 그대로 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경훈 지부장은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둘, 금속노조는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셋, 민주노총은 폭력 만행에 대해 엄중 대응하라.

연서명에 함께합시다!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 현대차지부 내 '현장 조직'들, 금속노조를 비롯해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들, 비정규직 단체들이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항의는 더 커져야 한다. 금속노조 조합원 연서명에 동참하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권하자.

문의 : 김우용 (금속노조 대의원, 경기지역 현장실천단장/ 010-3092-9003)

이경훈 지부장의 억지 논리들

이경훈 지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논의, 지역실천단장의 발언이 문제였고 민주노총 총파업 자체가 부당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적반하장·안하무인도 유분수다.

■ 지역실천단장은 맞아도 싸다?

아무리 잘못된 주장도 운동 안에서 제기된 동지의 주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는 해악질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다.

그런데 지역실천단장의 발언은 잘못된 주장이기는커녕, 이경훈 집행부의 사실상의 파업 철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 비정규 단체들도 "악이 되"는 "이성적인 쓴소리"였다고 꼬집었다.

■ '정당성 없는 파업'이니 안 따라도 된다?

4·24 총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중요한 투쟁이었다. 민주노총의 파업 조직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협상 결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현대차지부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했음에도 지부장의 독단에 의해 사실상 파업을 철회했다. 이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민주집중제를 훼손한 것이다. 이번 일을 묵과하면,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늘어나 노조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단체행동이 무력화될 것이다.

■ 지역실천단장이 현대차지부를 비난했다?

허 단장은 지부 전체를 싸잡아 비

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경훈 집행부를 꼭 집어 비판했다. 현대차 조합원들을 모욕(깔보고 욕되게)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스른 이경훈 집행부다.

노조 집행부가 저지른 잘못이나 배신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이런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소환함으로써 노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파업 안 한 곳은 현대차지부만이 아닌데?

어려운 조건에서 파업까지는 못하고 총회나 집회 참가로 대신했던 노조들과, 이경훈 집행부의 사실상 파업 철회와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이경훈 지부장은 심지어 총파업을 "억

지 파업"이라고 비난까지 하며, 총파업 전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 비판을 중단하고 "단결"하자?

이경훈 지부장은 "단결"과 "투쟁" 운운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거두라고 했다.

그러나 이경훈 집행부의 잘못에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고는 앞으로의 투쟁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에 대한 논란 때도, 금속노조 중상집 내에서는 '미워도 현대차지부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경훈 집행부는 힘을 합쳐 싸우기는커녕, 총파업에 깽판을 쳤다.

5월 1일 노동절, 가자 서울로!

대규모 집결로 박근혜의 폭주에 항의하자

4월 24일 총파업은 여러 우려 속에 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물론, 실제 파업에 돌입한 곳이 다 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총파업 집 회에 모인 조합원들은 성완중 게이 트, 세월호 진실규명 운동 등 박근 혜 정부의 위기 속에서 한 번 싸워 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확 인했다.

특히 이경훈 집행부의 찬물 끼엿기 속에서도, 기아차지부가 굳건히 민주노 총·금속노조 결정대로 파업에 돌입한 것 은 옳았다.

만약 4·24 파업이 실패하거나 애 초부터 민주노총이 입단투 등을 우선 시해 투쟁을 6~7월로 미뤘다면, 연초 에 지지율이 급락한 정권의 위기 상황 과,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가 한창인 국면, 세월호 시행령 정국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측이 기선을 제압한 상황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심각한 정치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임금체계 개악과



해고요건 완화, 공무원연금 개악 추 진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 속에서도 집요한 공세를 멈추 지 않는 지금, 우리 측도 집요함과 단 호함으로 맞서야 한다.

4·24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일 부 사항을 국회로 넘기고, 다른 일부 사항은 가이드라인과 시행령과 단협 시정 지도로 관철시키려 한다. 이렇 때 사업장별 입단협 대응으로 흩어져서

안 된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 경험은 정부 지침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중심 을 두지 않고 각 사업장 별로 각개약 진 하는 투쟁이 무기력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이런 분산적 투쟁은 미조 직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를 방기하 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초 대의원대 회에서 정부의 법 개악 시도뿐 아니 라, “가이드라인, 메뉴얼, 지침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방 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부터 투쟁 태세를 갖춰 나가자.

그리고 5월 1일 전국에서 집결하 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박근 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 세월호 진상 외면, 부패 꼬리 자르기 등에 반대해 분노의 함성을 보여 주자.

함께 참가합시다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

일시: 5월 1일(금) 오후 3시

장소: 서울시청 광장

정몽구는 불법파견 정규직화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분회 집행부는 4월 24일 한남 동 정몽구 집 앞에서 1백여 조합 원을 모아 집회를 하고, 27일부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노 속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파견을 끝장내겠다며 항의를 시작한 것 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배 짜라고 버티며 신규채용 안으로 비정규직 동지들을 우롱한 정몽구는 농성을 방해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1인 시 위를 하는 분회 조합원을 가로막 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이런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한 다. 그리고 지부·지회가 적극 업 호·연대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직 지 회·분회들은 6월 말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시작된 분회 의 투쟁을 더 발전시켜 공장 안에 서도 저항을 조직하자. 정규직 활 동가·조합원들이 적극 연대하자. 이런 힘을 모아 더 강력한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사공동위에 더 매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종석 집행부는 협상 중단하고 투쟁에 나서라

기아차 사장은 노동조합이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월 21일, 교섭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김종석 지부장과 5개 지회장은 4월 21일까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4일부터 잔업 거부를 통한 8/8을 시 행하겠다고 공헌을 했었다. 이제 곧바 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런데 22일 개최된 대의원대회에 서 김종석 집행부는 강력한 투쟁을 벌 이기로 결정하기는커녕, 기 결정된 8/8 잔업거부 마저 철회했다. 사측은

통상임금은 고사하고 임금체계 개악 안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투쟁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김종석 집행부는 그룹사 노조 연대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투쟁을 하겠다 며 정의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경훈 집행부와 함께 통상 임금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경훈 집행부와 공동투쟁을 하겠다며 투쟁을 차일피일 미 루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통상임금 확대에 실패했다. 더구나 이경훈 집행 부는 4·24 파업을 “억지 파업”이라

고 깎아 내리고, 울산 총파업 집회에 서 자신의 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 로 폭력 난동을 부렸다.

이경훈 집행부에 또 끌려 다녀서는 통상임금 투쟁을 승리하기 힘들다. 현 대차지부 핑계 대기는 이제 그만 좀 하자!

정몽구가 강력한 파업 투쟁 없이 통 상임금 확대와 임금체계 개악 철회 요 구를 순순히 들어줄 리 없다. 더구나 박근혜는 서둘러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을 밀어붙여 정몽구를 지원하려 한다.

당장 노사공동위에서 나와 총력 투쟁 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